

[MOOC] 서울의 도시계획 경험과 세계 도시개발에의 함의: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Seoul Urban Planning Experience towards Smart and Sustainable City
2016. 1. 30.
강명구 (Myounggu Kang)
mkangcity@gmail.com

Week 8. 청계천 복원과 도시재생
Cheonggyecheon (stream) Restoration and Urban Regeneration

[Cheonggyecheon Restoration Module 3]

Planning.

계획에 대해 살펴 봅시다.

We need a plan for the restoration.

우리는 복원을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Let me just review the situation before the restoration.

복원 이전의 상황을 다시 돌아보죠

Cheonggyecheon area is a densely populated area and is also a dense business area.

청계천 주변은 인구와 사업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The area nearby is deteriorated with low-income slums.

주변에는 쇠퇴한 주거지도 있었습니다.

Although it is called a stream, it is pretty much dry because the natural water circulation has been blocked due to urban development.

하천이라고 불리우기는 했지만, 도시화 이후 물이 흐르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Another important thing is that there were various interest groups with their own goals and needs to meet.

또한, 청계천 복원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This is the physical situation before restoration.

이 그림은 복구 이전의 물리적 상황을 보여줍니다.

Underneath, you can see the blue area, which is the water, but as you can expect it is waste water.

아래 보시면 파란 색이 보이는데, 폐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And you can see the road area that covers the stream and the elevated highway.

복개된 구조물과 고가도로가 보입니다.

Even in physical terms, this area is not easy to restore into its natural state.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복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Bringing new life to Cheonggyecheon started many discussions.

청계천 복원은 다양한 논의에서 시작하였습니다.

Especially in early 2002, there was a paradigm shift from rebuilding to restoration.

특히 2002 년 초, 재건설에서 복원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습니다.

As I've mentioned, the Seoul government had a plan to rebuild the elevated highway and they set a budget too.

말씀 드렸드시피 서울시는 고가도로 재건설 계획을 수립하였고, 예산도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But the idea for restoration came in as a new paradigm for urban regeneration.

하지만 복원이라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The goal is agreed later on but many concerns were raised.

복원을 하기까지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었습니다.

For example, the second concern was the issue of cost.

예를 들어, 두번째를 보시면 비용에 대한 우려가 보입니다.

The cost could range from small to large depending on how the restoration was planned, and project finance became a central issue.

청계천 복원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복원이 계획되는지에 따라 증가 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고,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는 큰 이슈였습니다.

But later on, the traffic flow and congestion also surfaced as an issue along with issues regarding the environment, regeneration, cultural and historical assets.

논의가 진행되면서, 도로 제거에 따른 교통문제 뿐만 아니라, 환경, 도시재생,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 되었습니다.

In this diagram, I summarized those kind of interests.

이 그림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It began with historical preservation of the downtown area where the area was to be recovered to be more ecological.

청계천 복원은 구도심의 역사 복원이라는 측면과 환경친화적인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But the point moves to how to finance this project.

그 다음의 초점은 막대한 비용에 대한 논의로 옮겨 가게 되었습니다.

What will be the cost and who will pay for it?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말입니다.

Then the point of discussion moved again to redevelopment and not just the restoration.

논의의 초점은 다시 한 번 옮겨가게 되는데, 과거로의 단순한 복원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개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They wanted to rebuild this area as a newly developed economic engine.

이 기회를 서울의 새로운 발전 엔진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These were the main points in the discussion and it was very difficult to prioritize the agenda.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이를 하나의 계획으로 담아내는 것이 난제였습니다.

This process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re were diverse interest groups and one group and one group focused

이 과정은 다양한 이익 단체들이 의견을 모아야 하는 과정이기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NG)

This is the diagram to summarize the discussions.

이 도표는 논쟁을 요약한 것입니다.

The restoration discussion began with the historic preservation because the Cheonggyecheon stream is in the downtown area

청계천은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역사복원이 중요 의제였습니다.

so there are lots of historical assets there and the Seoul government wanted to revive such assets.

문화유산이 있는 곳이었으며, 그 유산을 복원시키고자 했습니다.

The next point in discussion was the issue of cost. How much should be paid and who should pay for it?

토론의 다음 쟁점은 비용이 되었습니다. 얼마의 비용을 들여야 하는지, 누가 어떻게 그 비용을 감당할지 말입니다.

The cost was a big concern and it lead to another discussion about the redevelopment.
비용은 주요한 의제였고, 이는 개발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Instead of just restoring its natural state, some interest groups wanted develop the Cheonggyecheon area with high rise buildings.
청계천을 자연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넘어, 일부는 청계천 지역을 고층빌딩으로 개발시키길 원했습니다.

Mainly there were three interest groups.
3 가지 관점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The one of them wanted to restore the stream back to its historical shape.
하나는, 청계천을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리자는 의견입니다.

Another interest group in the extreme opposite wanted recreation.
다른 하나는, 위와 반대로 청계천의 새롭게 개발하자는 의견입니다.

They wanted to build new structures and create new industry in the area.
이들은 새로운 건물과 새로운 산업 형성을 원했습니다.

There was also the third interest group that focused on restriction.
세 번째는, 현실적인 측면에 대한 의견입니다.

They were focused on issues surrounding flood control, finance and technology.
이들은 홍수 조절, 비용 및 재원조달, 그리고 기술적인 제약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These discussions went back and forth and strong leadership was required in the planning process.
다양한 논쟁들이 오고 갔지만 합의점을 찾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리더쉽이 중요했습니다.

A leader was needed to bring the various interest groups to an agreement.
리더는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합의를 이끌어 내야만했죠.

We also needed to build a governance system.
우리는 또한 사업을 수행할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In this case, the Seoul government built a triangular implementation system.
서울은 삼각 실행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There are three major components of governance system.

3 개의 주체가 있습니다.

One is from the government.

하나는 정부입니다.

The public offices whose job is dealing with the technical issues of planning.

정부는 계획과 실행, 기술적인 문제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Another group is the experts group.

다른 하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They did researches and take care of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spects of the project.

전문가들은 과학적 기술적 측면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과 분석을 담당하였습니다.

And most importantly, there is the citizen's committee that coordinates these activities.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위원회입니다.

This is the participatory part of the restoration process.

시민위원회는 청계천 복원에서 주민참여를 담당합니다.

So there are three parts: The government, the experts and the citizens.

이렇게 3 개의 부분입니다. 정부, 전문가, 시민.

The collaboration between the three groups is very important for this kind of restoration project.

이런 종류의 사업에서 세 주체의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We will now examine the opposition against the restoration process.

복원과정에서의 갈등을 살펴 봅시다.

This is the picture showing the merchants of the Cheonggyecheon area demonstrating against the restoration.

이 사진은 청계천 상인들이 복원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They were concerned that the restoration will have negative influence on their business.

상인들은 복원이 그들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They were also concerned about the reduction in the transportation flow from the removal of roads.

그들은 도로를 제거하게 되어 나타나는 교통 용량 감소와 혼란을 걱정했습니다.

So a governance system with a strong leadership is needed to make an agreement among such parties.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버넌스 시스템과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This is an example, a case of Gwangtonggyo.

광통교의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Gwangtonggyo was the biggest bridge over Cheonggyecheon stream and the biggest and the widest bridge in the downtown area.

광통교는 청계천을 건너는 가장 큰 다리였으며 구도심의 가장 넓은 다리이기도 했죠.

The historic preservation group wanted to restore the bridge in its original location.

역사보호단체는 이 다리를 본래 장소에 복원하기를 원했습니다.

The picture on the left shows Gwangtonggyo's original location underneath the intersection.

왼쪽 사진에서 보듯이, 광통교의 본래 위치는 교차로 아래입니다.

Although it used to be the biggest bridge in the Joseon Dynasty, in today's standards it is a very small bridge difficult to support today's traffic flow.

광통교가 과거에는 가장 큰 다리였었지만, 오늘의 기준에는 매우 작은 다리이고 오늘날 교통흐름을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But the historic preservation groups wanted to restore Gwangtonggyo in its original location.

하지만 역사보존 단체들은 광통교를 본래 위치에 재건해야 한다고 했죠.

But there were some pros and cons.

본래 위치에 재건하는 것과 대안 사이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If we were to restore the Gwangtonggyo in its original location, there would be problems of transport flow

만약에 광통교를 본래 위치에 재건되면, 교통흐름에 문제가 생길 것이며.

and in terms of historic preservation if Gwangtonggyo is exposed to sunlight and to the vibrations from cars in transport, it could be harmed.

역사보전의 관점에서, 광통교가 직사광선에 노출되고 그 위로 차들이 지나다니게 되면 진동으로 인해 광통교가 손상될 것 입니다.

So the alternative suggestion was to move its location to the middle of the intersections as in the picture on the right.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다리의 위치를 오른쪽 그림처럼 옮기는 것입니다.

Some revisions were made in the process and the bridge was made to be used by pedestrians only.

이 다리로는 보행자들만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One of the pros was that by doing this we could preserve Gwangtonggyo better.

이 대안의 장점은 광통교를 더 잘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nd if we have better technology later on, we can restore the bridge back to its original location, but until then we need to preserve it this way.

나중에 우리가 더 좋은 역사보전 기술을 갖게 되면 우리는 광통교를 원래 장소로 다시 옮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때까지 대안적 방법으로 보존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입니다.

One of the biggest concerns is the flood issue.

청계천 관련 가장 큰 우려는 홍수였습니다.

Flood has been the biggest challenge in this area,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Korea.

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홍수인데, 특히 한국에 장마철이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The graph on the left shows the rainfall by month.

왼쪽의 그래프는 월별 강수량을 나타냅니다.

Because Korea has a rainy season which happens between June and September, most the rainfall is in these couple of months.

한국은 장마철이 있고 6 월과 9 월 사이에 강수량이 집중되죠.

So the Cheonggyecheon and its neighboring area are always prone to problems of flooding

청계천과 그 일대는 언제나 홍수의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and the picture on the right shows that the heavy rainfall is increasing nowadays partly because of the change in climate.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면 장마철 집중되는 강우량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현상이죠.

So the flood issue is the biggest concern.

그래서 홍수 방지는 가장 큰 우선과제가 됩니다.

Priority of the restoration.

최종 결정된 복원의 우선순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As you can see there is flood control, ecological, historical and cultural issues, but we have to prioritize which one should be concerned the most.

보시다시피 홍수, 생태,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야만 했습니다.

In this case, flood control became the top priority.

청계천의 경우 홍수 방지가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Otherwise the preservation of the area cannot happen.

홍수 방지 없이는 역사 보존도 무의미 해지기 때문입니다.

The ecological space is the next priority, while historical and cultural spaces come afterwards in order.

생태적 측면이 두 번째 우선순위가 되었고, 역사와 문화적 측면이 다음이 되었습니다.

The cost and time also became a big challenge.

비용과 시간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Most of the neighboring merchants and residents wanted this project finished in a short time because they didn't want their lives and business to be interrupted.

대부분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청계천 복원 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끝나기를 희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기간으로 인해 그들의 사업과 삶이 방해 받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This is the comparison between the Cheonggyecheon, High Line, New York and Boston restorations.

이 표는 청계천과 뉴욕 하이라인, 그리고 보스턴 빅딕 사업의 비교입니다.

From the figures you can see that Cheonggyecheon restoration was outstandingly cheaper than other similar projects.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청계천 복원사업은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